

평택의 산업구조변화 전망과 발전전략

2011. 9. 1

 **KIET**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이원빈



평택의 산업의 현황 및 특징

전국평균 보다 높은 1인당 GRDP

- 평택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14조 2천억원, 1인당 GRDP는 3,504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2008년 당해연도 기준)

<표 1> 평택시 주요 경제지표

구 분		평택(전국비중)	전국	
소득 인구	GRDP(십억원)	14,240.5(1.4)	1,028,500.5	
	1인당 GRDP(만원)	3,504	2,032	
	인 구(만명)	42(0.8)	4,875	
고용	실업률(%)	2.6	3.2	
산업 구조	생산액 비중(%)	1차 산업	0.2	2.7
		2차 산업	39.1	36.6
		3차 산업	60.7	60.7
재정	재정자립도(%)	52.7	51.9	
무역	수출액(US 억달러)	3.9	4,683	
	수입액(US 억달러)	1.69	4,252	

주 : GRDP는 2008년, 재정자립도는 2011년 기준이며 나머지 자료는 2009년 기준 자료임.

평택의 산업의 현황 및 특징

전자부품, 자동차, 기계장비 중심의 제조업 구조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의 업종이 지역 내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78%를 창출

- 생산액 기준으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2%를 차지

<표 2> 평택시 주요 제조업 사업체 통계 (2009년)

(단위: 개, 명, 백만원, %)

중분류	사업체수 (비중)	월평균 종사자수 (비중)	생산액 (비중)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전체	912 (100.0)	56,544 (100.0)	33,730,573 (100.0)	15,583,389 (100.0)
식료품 제조업	54 (5.9)	3,245 (5.7)	2,131,724 (6.3)	789,575 (5.1)
음료 제조업	2 (0.2)	162 (0.3)	X	X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4 (2.6)	1,042 (1.8)	255,564 (0.8)	99,163 (0.6)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0.1)	31 (0.1)	X	X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 (0.2)	58 (0.1)	X	X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12 (1.3)	328 (0.6)	86,236 (0.3)	11,867 (0.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41 (4.5)	1,895 (3.4)	742,250 (2.2)	169,911 (1.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 (0.1)	10 (0.0)	X	X

평택의 산업의 현황 및 특징

<표 2> 평택시 주요 제조업 사업체 통계 (2009년)(계속)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3 (0.3)	87 (0.2)	48,473 (0.1)	12,746 (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7 (9.5)	2,923 (5.2)	1,615,617 (4.8)	507,905 (3.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 (1.3)	865 (1.5)	384,187 (1.1)	211,991 (1.4)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12 (12.3)	3,906 (6.9)	1,071,439 (3.2)	407,878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8 (3.1)	789 (1.4)	295,512 (0.9)	158,166 (1.0)
1차 금속 제조업	35 (3.8)	1,752 (3.1)	976,903 (2.9)	275,519 (1.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88 (9.6)	2,874 (5.1)	751,203 (2.2)	260,971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5 (9.3)	14,906 (26.4)	19,290,786 (57.2)	10,610,037 (68.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 (2.7)	1,291 (2.3)	439,389 (1.3)	143,540 (0.9)
전기장비 제조업	45 (4.9)	2,247 (4.0)	604,542 (1.8)	223,553 (1.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0 (16.4)	5,987 (10.6)	1,768,999 (5.2)	599,182 (3.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9 (9.8)	11,165 (19.7)	2,808,491 (8.3)	935,307 (6.0)

평택의 산업의 현황 및 특징

<표 2> 평택시 주요 제조업 사업체 통계 (2009년)(계속)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0.2)	35 (0.1)	X	X
가구 제조업	11 (1.2)	576 (1.0)	187,240 (0.6)	59,867 (0.4)
기타 제품 제조업	3 (0.3)	370 (0.7)	114,302 (0.3)	63,673 (0.4)

자료: 경기통계(<http://stat.gg.go.kr>)/통계보고서/사업체조사

주: 1) 2009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재구성하였음.

2) 월평균 종사자수가 10인 이상 자료임.

3) 괄호 안은 비중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평택의 산업의 현황 및 특징

교육,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

- 서비스업의 경우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교육서비스업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음.

<표 3> 평택지역 서비스업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09년)

지역	서비스업종	사업체수	종사자수
경기 평택	합계	1,193(100.0)	38,475(100.0)
	도매 및 소매업	205 (17.2)	4,927 (12.8)
	운수업	131 (11.0)	5,102 (13.3)
	숙박 및 음식점업	102 (8.5)	1,897 (4.9)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1.4)	599 (1.6)
	금융 및 보험업	142 (11.9)	3,613 (9.4)
	부동산업 및 임대업	40 (3.4)	632 (1.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9 (2.4)	627 (1.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16 (9.7)	5,369 (1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8 (4.9)	3,854 (10.0)
	교육서비스업	188 (15.8)	7,547 (19.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27 (10.6)	3,663 (9.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1 (0.9)	220 (0.6)
	기타 서비스업	74 (2.3)	1,175 (1.1)

자료: 경기도청 사업체조사 경기통계정보, 2010

주 : 1) 월평균 종사자수가 10인 이상 자료임.

2) 괄호 안은 비중이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지역경제력 분석

- 평택시와 비슷한 인구 규모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권역별로 1~2개 도시를 경쟁도시로 선정하여 산업경쟁력과 지식기반경쟁력을 비교 분석하여 평택시의 지역경제력을 검토함.
- 비교대상 지역 : 원주, 청주(중부권), 순천, 목포(호남권), 진주, 사천(경상권)

(1) 산업경쟁력

1인당 생산액

- 평택의 1인당 제조업 생산액(제조업 생산액/종사자수)은 596.5백만원임.(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은 458.2백만원)
- 7개 비교도시 중 1인당 생산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순천으로 838.2백만원이며 평택은 그 다음으로 높음.

부가가치율

-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부가가치/생산액)비율을 측정한 부가가치율의 경우 평택은 46.3%를 나타냄.(전국 평균 33.3%)
- 비교대상 도시 중 부가가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 청주(49.7%)로 나타났으며, 경기 평택은 두 번째임.

지역경제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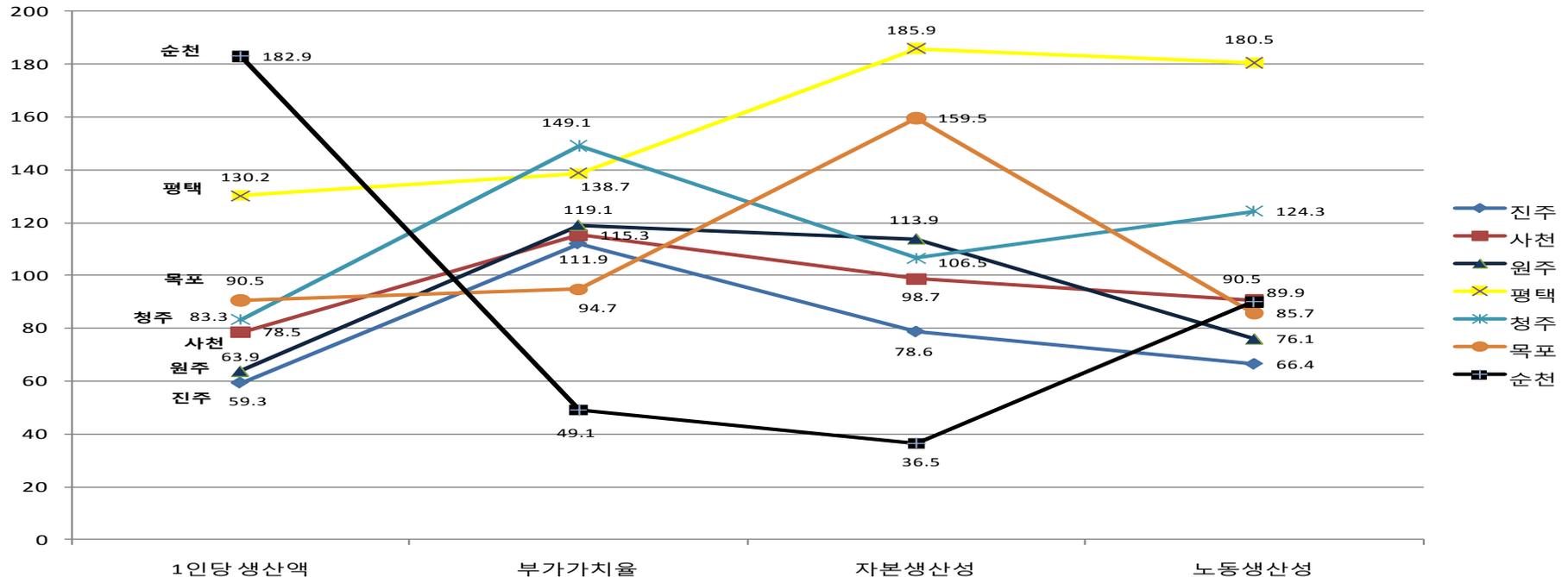
자본생산성

- 자본생산성의 전국평균은 0.99로 조사되었으며, 비교 대상 7개 도시의 평균은 0.98로 나타남.
- 평택의 자본생산성은 1.84로 나타났는데 7개 도시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수치임.

노동생산성

- 노동생산성의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은 152.7백만원 수준
- 평택은 1인당 연간 약 275.6백만원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약 1.8배가 높음.

<그림 1> 평택시와 비교도시 간의 산업역량 비교



지역경제력 분석

(2)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수 비중

-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수 비중은 4.4%이며 경기 평택은 이보다 월등히 높은 15.7%를 나타냄.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

-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의 경우 경기 평택은 5.34%(2007년)로 비교도시 중 사천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9.6%)에 비해서도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

재정자립도

- 지역의 지식기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연구개발 활성화, 지역 인재양성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적 차원의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적 지원능력도 중요하므로 재정자립도를 평가지수에 포함.
- 평택의 2011년 재정자립도는 52.7%로서 전국 평균(51.9%)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경제력 분석

(2) 지식기반 경쟁력 분석

<표 4> 지식기반경쟁력 역량 (2007, 2011년)

지표 지역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수 비중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비중		재정자립도	
	%	지수	%	지수	%	지수
경남 진주	0.55	12.4	6.83	71.1	27.3	52.6
경남 사천	14.13	318.2	3.15	32.8	18.6	35.8
강원 원주	2.75	61.9	7.24	75.4	30.7	59.2
경기 평택	15.72	354.1	5.34	55.6	52.7	101.5
충북 청주	8.00	180.2	7.38	76.9	37.8	72.8
전남 목포	0.11	2.5	6.82	71.0	27.8	53.6
전남 순천	0.76	17.1	6.65	69.3	20.6	39.7
6개 지역 평균	4.38	98.7	6.35	66.1	27.1	52.3
전국 평균	4.44	100.0	9.60	100.0	51.9	100.0

자료: 지역발전종합정보시스템(www.redis.go.kr)

주: 지식기반제조업 종사자수와 지식기반서비스업 종사자수 자료는 2007년 기준이며,
재정자립도는 2011년 자료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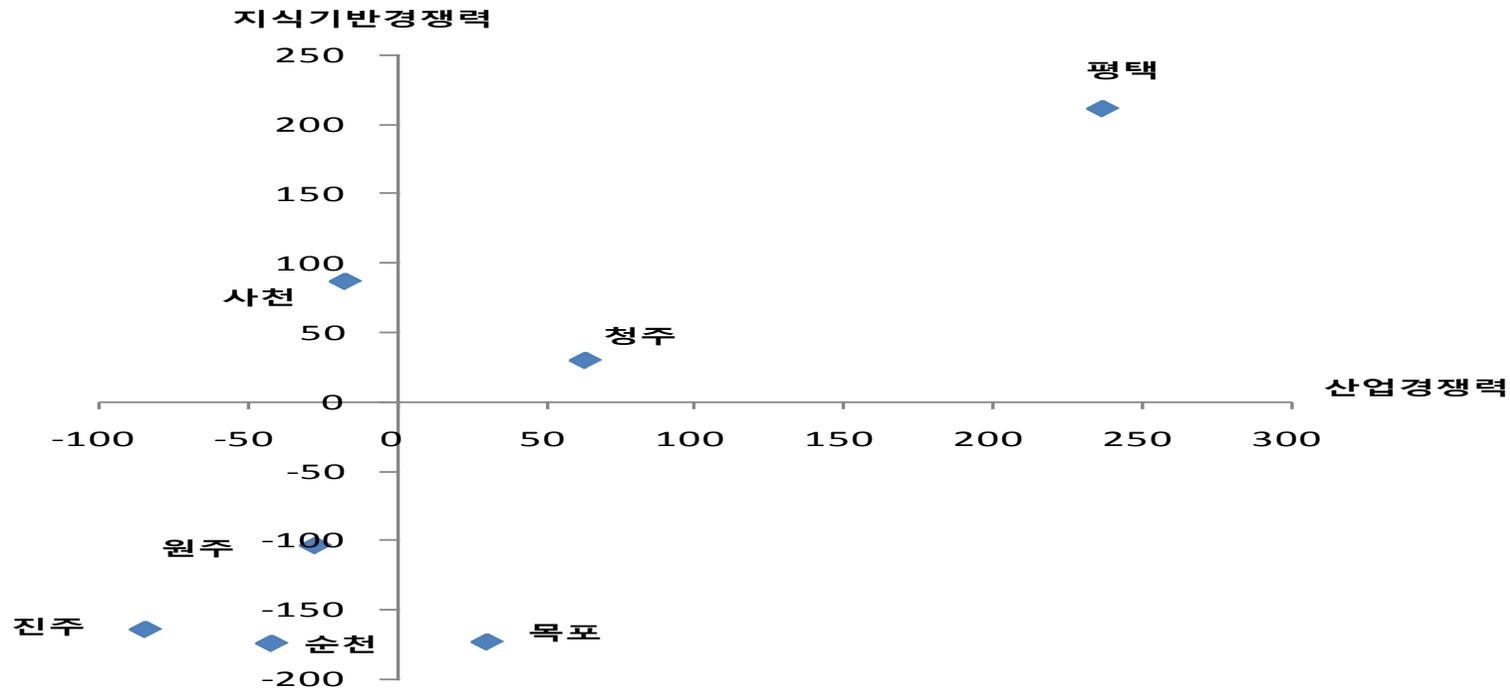
지역경제력 분석

(3) 양호한 지역경쟁력

경쟁도시에 비해 우수한 지역경쟁력

- 평택의 지역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산업경쟁력과 지식기반경쟁력 모두 양의 부호를 나타내는 1사분면상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산업경쟁력과 지식기반역량 모두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

<그림 2> 지역경쟁력 비교



(1) 외국인 투자의 유입

<표 5> 평택시 외국인투자 유치 계획

투자회사	투자 금액	대상 업종	투자지역
스미토모	24,000만 달러	전자부품(터치패널)	포승산단
제이텍트	1,730만 달러	자동차 부품	현곡산단
발카공업	1,000만 달러	반도체용 기계부품	오성산단

자료 : 언론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

(2)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투자

- 반도체 전자부품 산업 유치를 위해 고덕국제화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삼성전자와 입주를 위한 협약을 체결
- 고덕국제화 산업단지 개요
 - 조성면적 : 3,950천m² (산업시설 2,892천m², 지원시설 44천m², 공공시설 1,014천m²)
 - 주요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1) 외국인 투자 유입에 따른 기대효과

- 평택시로의 외국인 투자의 유입을 통해 공장설립,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 등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추진될 경우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비 지출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경기의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즉, 평택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입으로 발생하는 개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의 지출은 단기적으로 지출측면에서 수요확대를 통해 지역 및 전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초래하는데 본 고에서의 파급효과는 이러한 사업비 지출에 따른 경기 활성화 효과를 추정하는 것임.
- 평택 외국인 투자 유치사업에서 산업간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는 총 외국인 투자비 규모는 약 26,730만 달러(약 2,8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추정결과 평택 외국인투자유치사업으로 늘어나는 2,806억원의 순투자지출을 통한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생산이 4,827억원, 부가가치 1,566억원, 고용은 2,618명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크며, 다음은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수도권이 **지역 파급효과의 8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생산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에 미치는 효과 4,827원 중 수도권이 약 4,048억원(83.9%)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동남권 약 238억원(4.9%), 충청권 약 202억원(4.2%) 등의 순으로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표 6> 외국인투자의 권역별 파급효과

(단위 : 백만원, %)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유발효과	비중
수도권	404,815	83.9	131,856	84.2	2,184	83.4
강원·제주권	1,599	0.3	685	0.4	22	0.8
충청권	20,227	4.2	6,774	4.3	121	4.6
호남권	16,610	3.4	4,864	3.1	81	3.1
대경권	15,592	3.2	5,065	3.2	83	3.2
동남권	23,820	4.9	7,390	4.7	128	4.9
전국	482,663	100.0	156,634	100.0	2,618	100.0
타지역	77,848	16.1	24,777	15.8	434	16.6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 전국의 산업별 파급효과는 농림어광업 생산에 10.9억원(0.2%), 제조업 생산에 4,106.9억원(85.2%), SOC 생산에 72억원(1.5%)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에는 633억원(13.1%)의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나타남.

<표 7> 외국인투자의 산업군별 파급효과

(단위: 백만원, 명)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고용 유발효과
전국	합계	482,663	156,634	2,618
	농림어광업	1,098	669	35
	제조업	410,991	116,714	1,688
	SOC	7,230	3,228	24
	서비스업	63,344	36,023	871

- 중분류 수준에서는 전기·전자기기, 수송장비, 제1차금속,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수도권내의 산업별 파급효과는 농림어광업 생산에 2.7억원(0.07%), 제조업 생산에 3,845억원(86.1%), SOC 생산에 36억원(0.9%)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에는 524억원(12.9%)의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추정됨.
- 중분류 수준에서는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일반기계,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등의 산업에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 지역산업연관모형의 경우 전국 권역별 모형만 구축되어 있어 기초지자체 단위의 파급효과를 추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외국인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초지자체 단위로 파악하기 위해서 수도권에서 평택시가 차지하는 산업비중을 이용하여 추정
- 추정결과 평택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통한 평택의 파급효과는 생산이 60,305백만원, 부가가치 17,678백만원, 고용은 262명이 신규 창출될 것으로 예상
- 평택시의 산업별 파급효과는 농림어광업 생산에 3백만원(0.05%), 제조업 생산에 59,244백만원(98.2%), SOC 생산에 93백만원(0.15%)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에는 964백만원(1.6%)의 효과가 초래될 것으로 추정됨.
 - 중분류 수준에서는 대부분 전기 및 전자기기 업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산업에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이 외에도 외국인투자는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 기술, 경영 등 생산요소를 투자유치국에 이전하는 자원이전효과(resource transfer effect)를 통해 국내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 삼성전자 투자에 따른 기대효과

- 고덕산업단지의 조성을 통해 삼성전자와 협력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경우 지역내 고용증대 및 지역생산 증가, 세수증대에 따른 재정여건 개선 등의 다양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 삼성전자의 정확한 투자규모나 투자내역 등이 확정되지 않아 산업단지 조성규모를 바탕으로 원단위 추정을 통한 파급효과를 추정
- 원단위를 이용한 추정 결과 삼성전자와 협력기업의 투자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서 생산유발 2조 9,672억원, 기업유치 289개, 고용유발 10,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표 8> 고덕국제화단지(삼성전자 유치) 조성에 따른 파급효과

업체수(개)	고용자수(명)	생산액(억원)	수출액(백만달러)
289	10,700	29,672	1,058

(3) 평택의 산업구조 변화 전망

- 이상과 같이 외국인투자를 통한 603억원, 산업단지 조성으로 삼성전자 및 협력기업 등의 유치를 통한 2조 9,672억원 등 모두 약 3조 275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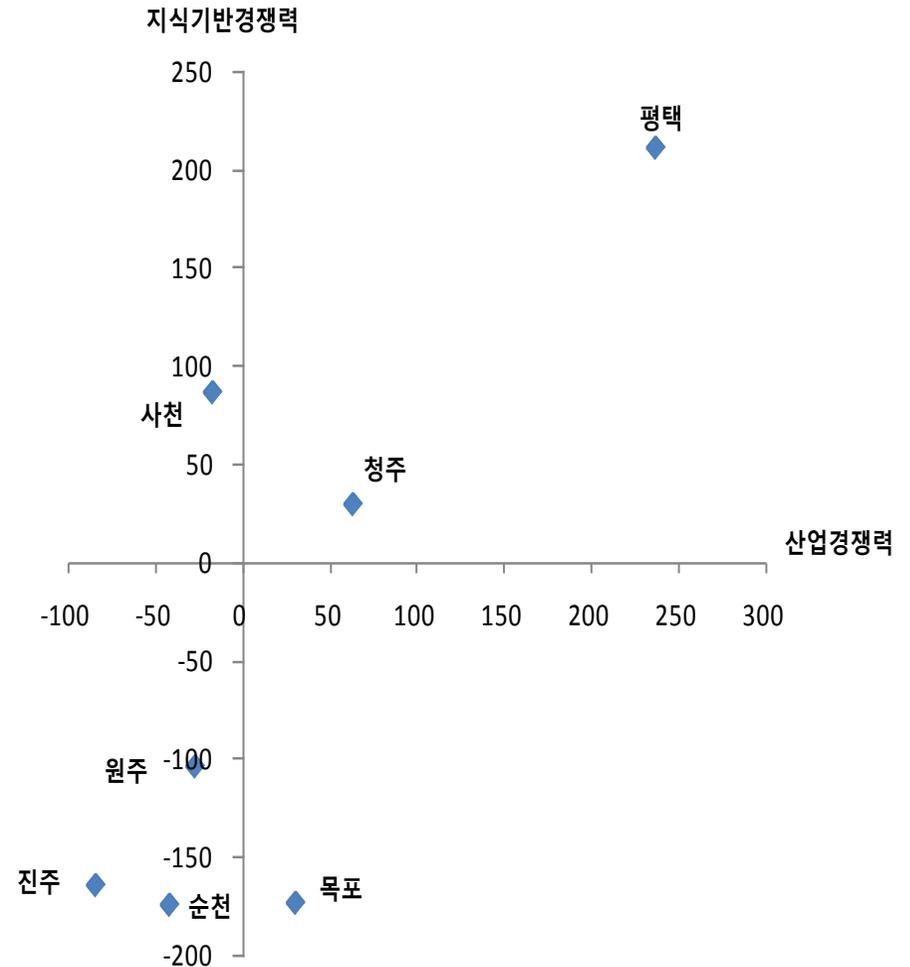
- 3조원이 넘는 생산유발효과의 대부분은 전자부품산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평택시의 투자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향후 평택시의 산업구조는 전기·전자기기 산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이로 인해 지식기반제조업의 종사자의 비중이 지금 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더불어 사업지원서비스의 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므로 지식기반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지식기반경쟁력이 개선되어 (그림 3)에서의 나타난 평택시 좌표상의 위치가 현재보다 더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평택시 지역경쟁력 변화 전망



경제발전 모델의 변천

-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 요소투입을 통한 경제성장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혁신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어 왔음.
- 2010년 현재, 창조계급에 의한 창조성과 다양성을 통한 지식확산의 경제발전모델의 정착이 필요

창조도시란 기술(Technology), 인재(Talent), 포용(Tolerance)으로 구성된 지역

- 우수한 기술과 다른 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핵심인재가 거주
-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가 집적된 compact city로서 대도시의 수직적 다양성을 보유
 - 특정 분야로의 집중된 중소도시이지만 집중된 분야 내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동반한 수직적 다양성이 존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

(1) 도시 발전모델로서의 창조도시(Creative City)

고도의 외적, 내적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지식체계와 지식 공유 능력을 보유한 지식허브

- 거래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지식주도의 경제체제 하에서도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근접한 지역에 모이는 이유는 지식과 연구개발 성과의 공유를 통한 외부효과의 창조 때문
- 지식클러스터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이 중요

지식체계가 집적된 생산기반형 창조도시

- 특정분야에서의 다양한 계층 간 창조계급의 공간적 집중은 창조기술을 창출하고 이는 나아가 해당 지역에서 해당분야의 내생적 발전을 유도

미래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전략

1) 혁신역량의 강화

(2) 평택시 발전전략

창조의 핵(Creative Core)을 구성하고 있는 고급인적자원의 확보가 관건

- 도요타시는 도요타 자동차 생산공장과 연구소, 울루시는 노키아와 부설연구소, 그리고 신주시에 TSMC와 같은 IT기업들과 부설연구소 및 연구단지 등이 유기적인 연계와 활발한 교류가 있음.
- 평택의 경우 혁신역량 확충을 위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가 매우 중요

지역소재 대학의 중추적 역할 기대

- 평택 소재 대학교는 전문대학 2곳을 포함하여 모두 3개에 불과한 실정
 - 제조업 특화경제의 평택시 위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양성이 필요
- 대외적으로는 인근의 중앙대학교, 한경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연계를 통해 고급인적자원의 공급확대를 추진

혁신(연구개발) 역량의 확보

- 평택이 창조도시로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연구조직 등의 연구개발 인프라의 대폭적인 확충 및 질적수준 제고가 필요
- 즉각적인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국책연구소 등 외부 연구개발조직의 유치를 추진하여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추진.
- 상대적으로 연구개발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구축과 융합산업에 초점을 맞춰 연구개발과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다변화

(2) 평택시 발전전략

산업고도화 전략수립이 필요

- 평택은 1인당 생산액 및 요소 생산성 부문에서 경쟁 도시에 비해 월등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도 높은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반은 전국평균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임.

- 지역산업의 전반적인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구조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검토

3) 창조도시를 위한 소통과 교류 확대

유연한 경제·사회·문화 조성

- 제도적 유연성은 물론 이질적인 것까지 포용할 수 있는 생태문화 조성이 필요
- 다양한 분야의 창조계급 유치를 위한 인사조직 문화상의 유연성 필요
- 세대간, 주체간, 산업간 개방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하는 유연성 필요

- 산학연 연계, 산산연계, 학연연계 등 연계를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가 관건

인적자원의 순환에 대한 우호적 문화 조성

- 지역인재의 유출방지라는 배타적인 시각보다는 인재순환이라는 시각에서 다른 지역의 인재 유치에 적극적인 분위기 조성
- 순혈주의보다 다양성이 야기하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

<참고 자료>

1. 경기 파주 LCD지방산업단지

□ 투자 현황

- 조성기간 : 2003 ~ 2007
- 조성규모 : 총면적 1,175천㎡, 산업시설구역 1,120천㎡ 지원시설구역 55천㎡
- 입주업종 : TFT-LCD 제조 및 관련산업
- 입주업체 : (주)LG Philips LCD, (주)희성전자, (주)한국SMT, (주)대성산업가스

□ 투자의 영향 분석

인구 변화 추이

- 1996년부터 2008년까지 파주시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5.12%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 3.06%보다 높음.
- 특히 산업단지 착공이 완료된 2005년 이후 파주시의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6.09%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2.10%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인구증가율 추이>

	1996 ~ 2008	산업단지 조성 이후 (2006 ~ 2008)
파주시	5.12%	6.09%
경기도	3.06%	2.10%

<참고 자료>

산업구조변화 추이

- 1997년부터 2008년까지 파주시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은 5.09%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사업체수 연평균 증가율인 3.83%보다 높음.
- 같은 기간 파주시의 연평균 종사자수 증가율 역시 6.45%로 경기도의 연평균 종사자수 증가율인 3.77%보다 높게 나타남.
-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파주시의 연평균 사업체수 증가율은 7.63%로 같은 기간 경기도의 연평균 사업체수 증가율인 3.01%보다 2배 이상 높음.
- 같은 기간 연평균 종사자수 증가율 역시 파주시는 10.68%로서 경기도의 연평균 종사자수 증가율인 3.90%보다 2배 이상 높음.

<산업구조변화 추이>

	1996 ~ 2008		산업단지 조성 이후 (2006 ~ 2008)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파주시	5.09%	6.45%	7.63%	10.68%
경기도	3.83%	3.77%	3.01%	3.90%

<참고 자료>

- 산업단지 공장 가동이 시작된 2006년 이후의 파주시의 업종별 연평균 사업체수 증가율은 제조업 7.25%, 건설업 9.60%, 도매 및 소매업 6.21%, 운수업 13.47%, 숙박 및 음식점업 4.15%, 부동산업 및 임대업 7.06%, 교육서비스업 12.1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3.25%임.
- 산업단지 공장 가동 이후의 파주시의 업종별 종사자수 증가율은 제조업 8.05%, 건설업 17.14%, 도매 및 소매업 11.38%, 운수업 14.77%, 숙박 및 음식점업 7.41%, 부동산업 및 임대업 10.23%, 교육서비스업 9.92%,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19%임.

재정수입의 변화

- 파주시의 지방세 수입은 1997년 770억에서 2008년 3,290억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약 16.42%임.
- 특히 파주 LCD지방산업단지의 완공 후 본격적으로 공장가동이 시작된 2006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지방세 수입이 53% 급증함.

<참고 자료>

2. 아산 탕정산업단지

□ 투자 현황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 조성기간 : 2004 ~ 2009(사업비 10,200억원)
- 조성규모 : 총면적 2,114천m², 산업시설구역 927천m², 지원시설구역 258천m², 공공시설구역 410천m², 녹지구역 472천m², 기타구역 47천m²

탕정 T/C일반지방산업단지

- 조성기간 : 1995 ~ 2005(사업비 2,160억원)
- 조성규모 : 2,021천m²(산업시설구역1,042천m², 지원시설구역450천m², 공공시설구역327천m², 녹지구역:202천m²)

□ 투자의 영향 분석

인구 변화 추이

-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아산시의 인구증가율은 3.10%로 나타남.
- 동 기간 충남도의 인구증가율은 5.5%로 아산시 증가율보다 높음.
- 그러나 삼성코닝 정밀유리(주)의 공장이 가동된 이후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인구 증가율은 아산시 4.78%로 충남도의 3.34%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참고 자료>

<인구증가율 추이>

	1998 ~ 2008	산업단지 조성 이후 (2004 ~ 2008)
아산시	3.10%	4.78%
충남도	5.50%	3.34%

산업구조의 변화

-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아산시의 사업체수 증가율은 3.0%로, 동 기간 충남의 사업체수 증가율 1.27%보다 높음.
- 동 기간 아산시의 종사자수 증가율 또한 7.65%로 충남의 종사자수 증가율 3.27%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2004년 이후 아산시의 사업체수 증가율과 종사자수 증가율은 4.59%와 8.16%로 동 기간 충남의 사업체수 증가율 및 종사자수 증가율인 1.67%, 3.44%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산업구조변화 추이>

	2000 ~ 2007		산업단지 조성 이후 (2004 ~ 2007)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아산시	3.00%	7.65%	4.59%	8.16%
충남도	1.27%	3.27%	1.67%	3.44%

<참고 자료>

- 산업단지 조성 후 2004년 ~ 2007년까지 아산시의 업종별 사업체수 증가율은 제조업 4.14%, 건설업 11.43%, 도매 및 소매업 1.74%, 숙박 및 음식점업 3.02%, 금융업 및 보험업 4.21%, 부동산업 및 임대업 6.74%, 교육서비스업 11.5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20%임.
- 동 기간 동안의 업종별 종사자수 증가율은 제조업 9.65%, 건설업 13.56%, 도매 및 소매업 3.50%, 숙박 및 음식점업 68.20%, 금융업 및 보험업 0.69%, 부동산업 및 임대업 3.51%, 교육서비스업 11.85%,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16%임.

재정수입의 변화

- 아산시의 지방세 수입은 1999년 645억에서 2008년 3,066억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19.42%임.
- 특히 산업단지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4년 동안의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23.16%로 같은 기간 충청남도의 지방세 수입 증가율인 15.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감사합니다